



18년 동안 함께 한 사랑의 친구들

김성애 (사랑의 친구들 이사·운영위원)

제가 사랑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로 인연을 맺은 지 어느새 18년이 지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밥을 굶는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꺼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의 친구들 봉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 떡국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던 날 성북동 달동네의 한 집 한 집에 떡국 바구니 배달을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로 알고 있던 성북동에 그렇게 어려운 형편의 가정이 많은 줄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 안까지 들어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고마워하던 눈빛들이 제가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조금은 뻔뻔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체험이 전달되어 오랜 기간 꾸준히 모금에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마움을 일일이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0년 지기 절친인 윤춘희에게도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당뇨병 휴유증으로 거의 실명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는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해마다 떡국 바구니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떡국 바구니 안에 담긴 카드에 쓰여있는 이름을 통해 직접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자신의 마음이 전달된 것에 고마워하며 더 많이 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친구들이 벌이고 있는 떡국 나누기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복지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제가 오랜 기간 (주)효성에서 패션관련 업무를 보았던 관계로 백화점과 패션기업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바자회를 지금까지 18회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핑 골프웨어를 기부해 주시는 (주)크리스패션, 질 좋은 양말을 기부해 주시는 (주)실버텍스, 그리고 유라, 애경산업, 보우실업..... 을 비롯한 많은 업체 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당당하게 후원요청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친구들 가족들은 늘 고마움으로 기도 드리며 보답하겠습니다.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까지, 자원봉사로 남고 싶었지만 저도 최근에 이사직을 수락하고 운영위원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더욱 힘껏 봉사하라는 뜻으로 점점 큰 임무를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사랑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이사와 운영위원을 맡아주실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설날 아침 온가족이 나누는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지난 18년 동안 57,777가정에 사랑의 떡국바구니 전달

사랑의 떡국 나누기는 새해 명절이 다가와도 떡국 한그릇 조차 끓여 먹을 여유가 없는 어려운 가정에 떡국거리가 담긴 바구니를 전달하여, 새로이 시작된 한해를 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자 1998년부터 시작된 사랑 나눔 행사이다.

하나의 떡국 바구니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성금 3만원을 1구좌로 모금활동을 펼쳐 조손가정, 저소득 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가정에 서너번은 넉넉히 끓일 수 있는 양의 떡국바구니를 만든다.

2016년 2월 2일(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여덟 번째 '사랑의 떡국 나누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후원자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419명이 함께 참여해 떡국떡 3kg, 쇠고기 양지 650g, 멸치 500g, 스팸 200g과 후원자의 성함이 기재된 연하장이 들어간 3,000개의 바구니를 포장하고 직접 어려운 가정

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2016 사랑의 떡국나누기를 위해 375명의 개인 후원자와 38개의 단체가 따뜻한 마음을 모아 모금한 금액 112,371,864원. 특히 2007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랑 나눔에 앞장서주고 있는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3천만원을, 스위스재보침에서 9,039,864원을, 그리고 CJ나눔재단에서 스팸을 후원해 주어 푸짐하고 알찬 바구니를 만들 수 있었다.



사랑의 떡국 바구니 함께 나누었습니다.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등 : 총 2,375바구니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 지방 인천(계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원미구), 전남(목포, 무안), 충남(논산, 천안)
- 기관 강남 시니어플라자, 강화우리마을, 광림외국인재자훈련센터, 김포 능동교회,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원동교회, 두레방, 드림트리(거리의전사들), 민족사랑 노숙자센터, 베다니노인의집, 보사노인복지센터, 새비전지역아동센터, 새빛지역아동센터, 신천성당 빈철토,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아모그린텍장미가정(그룹홈), 에덴지역아동센터, 오디가정(그룹홈), 외곽, 윤혜복지재단,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정동제일교회, 정릉4동복지협의체, 정신대대책협의회,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한국사각장애인복지재단,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햇살사회복지회
- 조손가정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 총 115곳, 625바구니
- 강원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 경기 꿈나무·드림지역아동센터, 은행골우리집, 줄은터·한무리 지역아동센터
- 경북 영순지역아동센터
- 광주 겨자씨·꿈나래·꿈나무·꿈누리·다솜·도담·무지개·밝은별·봉선·비전스쿨·사직·선·소망·용산·자연친구·주안·즐거움·지원·참사랑·참좋은·천재·파란꿈·평동·꽃꽃친구·학동·한우리·한울·해바라기·해오름·행복한지역아동센터
- 대전 가정·극동·꿈땅·나눔의·대전·도마·만두레·목상·새싹·서광·서대전·성나의집·소망·예찬·오정·우리·은혜·정금·푸른솔·한빛지역아동센터
- 서울 갈현·꾸러기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 반디청소년 공부방, 반석방과후교실, 솔바람·어린이나라지역아동센터,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어린이교실, 전농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 인천 계양키피·구월·드림·렘넌트·만수사랑·만수행복·석남·선민아이들세상·신나는교실·씨앗·영산·우리누리·위즈키즈·임학·청솔·하늘씨앗·행복나눔·효성사랑·효성·희망남구지역아동센터
- 전남 나로도·녹동중앙·대흥·발포·파랑새지역아동센터
- 전북 꽃동산·꿈나무·꿈터·남중·덕진·동산·무지개·반석·삼성·세움·애우리·예품·오산·옥야·우아·정다운·중앙·준포·파랑새·평화디딤돌·하랑·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 충북 그린지역아동센터



2016 사랑의 떡국 나누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강명선·강미선·강미진·강민혜·강종희·고경애·고규련·곽상준·곽선례·구종태·구준모·권남인·권석재·권수정·권향엽·김경돈·김경숙
 김경순·김경애·김경영·김경희·김광애·김기봉·김남연·김내현·김동훈·김명자·김미경·김민준·김부단·김부용·김삼례·김삼순·김삼미
 김상희·김선희·김설웅·김설현·김성애·김성우·김성재·김성훈·김수정·김숙희·김순자·김시영·김양심·김연희·김영순·김영자·김영중
 김영혜·김예진·김원자·김유진·김윤석·김은예·김은채·김의숙·김의신·김인규·김재숙·김정경·김정규·김정미·김정수·김정순·김정연
 김정완·김정자·김정현·김주희·김지연·김지원·김진규·김진수·김찬기·김태연·김한순·김해준·김행자·김혁희·김현숙·김현자·김현중
 김형순·김혜식·김혜진·김홍진·김홍남·김희정·노성민·류원하·마영자·모숙현·문성근·문소영·문순금·문정순·민근희·민웅기·박민
 박영·박갑영·박경미·박규순·박규숙·박길순·박성연·박수미·박순애·박순이·박신애·박신자·박유경·박유자·박윤희·박은경·박인숙
 박정희·박종희·박종렬·박준규·박필규·박현미·박혜숙·박희경·배민영·배신숙·백경희·백기숙·백주현·백진숙·서명자·서수용·서은영
 서재연·서현주·서희정·설훈·성인숙·성정숙·소유섭·손성희·송인숙·송양자·신동철·신상희·신선련·신양미·신연남·신연숙·신지영
 신춘지·신현순·신혜연·심계숙·안병원·안정애·안종금·양경숙·양계남·염명화·염채원·오명진·오승희·오혜경·원종란·원종한·원현정
 유경·유달리·유영미·유옥규·유은숙·윤상현·윤서석·윤성환·윤순희·윤신자·윤용로·윤우식·윤재우·윤춘희·윤형두·윤혜라·윤효진
 윤후정·이욱·이강금·이경화·이광자·이권우·이규자·이규훈·이근미·이길선·이나영·이다예·이동진·이두래·이명혜·이목희·이미경
 이보은·이복기·이복형·이상룡·이상화·이석현·이선우·이선이·이선행·이성복·이성옥·이성희·이수연·이순례·이승철·이양구·이예스더
 이영아·이완기·이용구·이윤주·이윤경·이은실·이재용·이점임·이정순·이정원·이정자·이종영·이종욱·이주학·이준우·이지원·이진구
 이진용·이진우·이재운·이하영·이해동·이해찬·이현주·이형례·이화진·이효경·임명자·임영숙·임은옥·장선화·장순량·장욱자·장은실
 장일선·장형숙·전길환·전덕기·전승규·전영숙·정계숙·정기화·정대련·정순자·정옥자·정은희·정인아·정인옥·정준선·정지영·정지호
 정혜인·조민자·조성숙·조아라·조영순·조영임·조영준·조예자·조유민·조윤자·조인순·조재민·조현정·주가람·주민자·주사랑·진정자
 차경애·차성수·천영옥·천용택·최규재·최병분·최석식·최숙자·최순자·최순희·최애경·최재승·최정돈·최정수·최준영·최준호·최지은
 최진홍·최해경·최향원·최호을·탁동현·하명희·하선주·하은영·한기원·한명섭·한명옥·한서경·한선희·한인애·한재현·한정희·한현옥
 한홍구·한홍식·허남근·홍근표·홍명자·홍미연·홍순상·홍영규·홍예원·황서경·황순택·황정순
 Lucas Chun · Richard Chun · Stephen Chun · 무명 30인

[단체]

CJ나눔재단·(주)김민정디자인웍스·(주)다다·(주)대일텍스타일·(주)마녀공장·(주)신즈디자인하우스·(주)에임하이코리아·(주)인진·(주)종이나
 (주)크리스패션·(주)한국카본·(주)효성·obs 경인tv·강화우리마을·구로팜·노광건설(주)·배재대 기초영어반·보미종합건설·삼호유리산업
 샴터봉사회·셋별회·성북한마음봉사회·성일교회·손잡고·스위스재보험·엄나구모성형외과·에스더기도선교회·우정회·윤혜복지재단
 일촌공동체노원센터·정동제일교회·정릉4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천재교육·평안정공(주)·하나금융나눔재단·한전부녀회·흥천사

사랑하는 <사랑의 친구들>의 모든 분들께
 늘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외로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 써주
 셔서 제가 늘 감사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
 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사랑의 친구들처럼 멋진 어른
 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따뜻함으로
 감싸안아주길 바랍니다. 제가 한분 한분께 갚지 못하
 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웃들을 돌보며 갚아나
 갈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다함이 할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며
 인사 전해 달라고 하십니다. 민선이 어머님도 감사하
 다고 명절 잘 보내시라고. 모두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인사 받아서 죄송하지만 기쁘게 받았습니니다. 올
 한 해도 더욱 번성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
 랍니다.

-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구본삼 교사



어려운 어린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2015 사랑나누기 바자한마당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은 1998년 IMF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결식아동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굶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시작된 기금 마련 바자로 바자에서 모금된 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지역의 어린이들이 희망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에 전액 지원하고 있다.

18번째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이 지난 2015년 10월 17일~18일, 양일간 이화여자고등학교 류관순 기념관 앞에서 열렸다. 2015 바자에는 이틀간 109개의 기업 및 개인이 물품을 후원하고 바자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419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했다.

바자는 생활용품코너를 비롯해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성숙영)의 해외특산품 코너, 우리 농산물 코너, 사용한 물건도 깨끗이 모아 되파는 아나바나 장터, 다양한 음식으로 행사장을 찾는 이들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먹거리장터 등으로 구성했다. 첫째날에는 방송인 최광기씨의 진행으로 사회저명인사 기증품 경매, 둘째날에는 어린이들의 따뜻한 한끼 식사값인 4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행운권 경품추첨도 준비해 총 126,142,813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매해 바자를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의 해외 회원 70여명이 고국을 찾아 부스를 열었고 2005년부터 바자를 후원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에서도 은행의 임직원과 가족들 70여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1. 의류매장이 배치된 류관순 기념관 실내모습.
2. 2005년부터 사랑나누기 바자한마당을 후원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의 자원봉사자들.
3.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엄귀옥 바자준비위원장의 행운권추첨.
4.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명예회장이 바자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바자준비위원들, 자원봉사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바자를 후원해 주신 분들

물품 후원	5,17가족, CJ나눔재단, KD&G, PING, Thanks and vision, Y.U.K 상사, 국순당,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구정치과, 국제통상연구구소 공정무역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금호아시아나그룹, 글로벌어린이재단, 길병원, 김근태재단, 김내현화랑, 노아의집, 농협청동농산물유통센터, 대진도기, 드림교회, 디자인갤러리, 람바자, 로렘, 보우실업, 브랜딩위즈, 비둘기회, 상텐회, 샘표식품(주), 성북한마을봉사회, 세고비아기타, 세월리카페, 소야코리아, 심슨, 씨제이제일제당(주), 아이러브강남의원, 아태여성아카데미, 애경산업(주), 애터미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예향, 용마로지스, 유달리, 유라, 유로, 유한킴벌리, 이콜리, 이스타항공, 이종란메이크업예술학원, 이진옥천연염색공방, 이플란치과, 이형근방짜유기, 이화민주동우회, 인사모, 일촌공동체 성남센터, 전남영양군, 종이문화재단, (주)까사미아, (주)농심, (주)다산복스, (주)대풍, (주)더스킨컴퍼니, (주)동원F&B, (주)두산, (주)로그나코리아, (주)메디컬그룹 베스티안, (주)미스지콜렉션, (주)신원엔에스, (주)실버텍스, (주)영창레포츠, (주)클리오, (주)한성FNC, (주)한아인터내셔널, 채빛퀴진, 차밍패션, 충남떡방앗간, 코스트코리아양재점,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플래주, 한맘기획, 행남자기, 향기나눔마을, 현대홈쇼핑, 형제갈비
개인물품 기증	권남인, 권재진, 김덕신, 김성애, 김순자, 노영혜, 문제인, 박옥란, 박원순, 박정희, 박희경, 성인숙, 신성주, 원현정, 이상연, 이인호, 이종걸, 이종욱, 이희호, 장예순, 최지현, 한인경, 한정애
성금 기부	김영미, 김은희, 김찬희, 김혜식, 남궁진, 백낙청, 신동수, 심치선, 원명재, 이경림, 이석현, 이희경, 이희호, 장예순, 천정배, 최재승, 한서경, 한용의, 홍근표, 국민은행 제기동지점,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목우회, 하나금융나눔재단
행운권 구입	곽선례, 구길모, 구준모, 권순희, 김경례, 김경순, 김경영, 김경희, 김보경, 김성애, 김성재, 김숙희, 김순자, 김순희, 김영미, 김영자, 김은주, 김의순, 김정규, 김정열, 김주희, 김창호, 김한순, 김향미, 김홍진, 나정웅, 남은미, 노영혜, 노윤화, 문순규, 문정순, 민근희, 박신애, 박옥희, 박은경, 박정희, 박종렬, 박주연, 박필규, 박혜경, 박희순, 박희양, 백경희, 성인숙, 송양자, 심형순, 양경숙, 양남요, 엄경순, 유승희, 윤신자, 이경림, 이미경, 이선순, 이순례, 이아정, 이예스더, 이정원, 이정자, 이종욱, 이해동, 이해원, 인재근, 장순량, 장일선, 전길환, 정복동, 정수연, 정순택, 정재희, 정학례, 조영임, 주사랑, 최간자, 최규채, 최병숙, 최정돈, 최향원, 하명희, 한인애, 허매화, 황순안, Richard Chun, Stephen Chun, Lucas Chun, 신촌성결침례교회, 에스더기독교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행운권을 구입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원들과 공부방 어린이들의 특별한 만남

아름다운 우정 이어가는 글로벌어린이재단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



해외 거주 한국 어머니들의 모임인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성숙영)은 1999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 참여해 한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바자가 다가오면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은 바자에서 판매할 악세사리, 영양제, 의류, 생필품 등을 현지에서 구입해 한국을 방문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5 사랑 나누기 바자한마당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 70명은 바자에서 준비해 온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42,584,000원 전액을 사랑의 친구들에 기부해, 2016년도에 진행될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를 후원했다.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은 이틀간의 바자를 마치고 10월 19일 인천지역의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공부방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자

리를 가졌다. 이날 공부방을 방문한 회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악세사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떡도 함께 만들어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몇년씩 연속해서 같은 공부방을 방문하는 회원들은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함께 찍었던 지난 사진들을 같이 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어머니들이 IMF 금융위기로 늘어난 한국의 결식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988년 첫모임을 가진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 지역에 21개 지부를 결성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차드, 콩고, 동티모르, 과테말라, 아이티 등 전세계 30여개 나라에서 어려운 어린이들의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원자와 봉사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

'사랑의 목도리 뜨기'는 북한 어린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목도리를 만들어 보내는 캠페인이다.

2011년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에 목도리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이희호 명예회장의 방북에 맞춰 6,000점의 목도리를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총 10,300점의 목도리를 지원했다.

올해도 목도리 뜨기 캠페인은 계속된다.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연합회,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봉~스쿨' 등 11개의 단체와 115명의 개인이 후원하고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 목도리 뜨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후원금은 1만원으로 후원금을 주신 분들에게 실과 바늘, 목도리를 완성하는 방법이 기재된 안내서 등을 보내고 있으며, 처음 뜨기에 도전하는 분들은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를 통해 목도리 뜨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시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02-734-49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의 목도리뜨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강경숙	김일인	김한울	문소영	백성순	심수정	우창희	이소미	이인숙	임사랑	정연수	최용숙
	강예은	김정애	김해영	민동엽	백예서	안봉숙	원현정	이소진	이인영	임영숙	정유석	최은주
	구윤혜	김정윤	김향미	박민서	서윤지	안선희	윤가영	이승연	이재혁	임우진	정지민	한가인
	권우진	김정현	김현아	박민아	서진희	안준수	윤령근	이시연	이정식	임재희	정창현	한미소
	권재은	김정희	김현옥	박소옥	성지인	양예림	이가현	이신애	이정원	임하연	정춘자	한승빈
	김가현	김준명	김현자	박수자	손민재	양인자	이경복	이아정	이종옥	임한나	조라희	허숙자
	김귀자	김지만	김형은	박숙현	손부예	양재순	이규빈	이애숙	이지선	임한솔	조민수	허예진
	김남실	김지숙	김희수	박양님	손정숙	양지용	이규영	이영주	이지애	장광배	조아라	허진명
	김다바다	김지현	남기현	박은경	손채영	양진혁	이근희	이예인	이찬희	장윤수	조유진	홍은숙
	김선해	김창일	노수진	박재숙	손초강	오기영	이다연	이용찬	이채원	전다빈	조혜리	홍지연
	김수민	김태자	노윤화	박재은	신경혜	오가윤	이동혁	이유진	이준형	전태선	주민성	황주원
	김승현	김태훈	도미숙	박혜교	신성주	오명준	이미경	이윤승	이홍숙	전현주	천현서	MAXINRUI
	김은주	김하나	류순애	박혜진	신하영	오수경	이미정	이은복	이효성	정다은	최보라	
	김은희	김한결	류연중	박희경	심명자	오수민	이성림	이은영	인재근	정선운	최성란	

[단체]
광주점자도서관, 도봉청소년독서실, 명진고등학교, 삼성SD(오창,의왕,구미,여수), 삼성물산(주),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봉~스쿨' 수원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경북연합회, 군산연합회, 서울남연합회, 익산연합회, 전국연합회, 충남연합회)

도레미도레미도레미송 ♪ 들어보실래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1박2일 영어캠프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방에서 출발할 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다. 파닉스 캠프에 가기 전 영어공부를 할 때에는 어렵기도 했지만 캠프를 간다고 한 뒤부터는 파닉스 시간이 기다려졌다. 캠프 준비를 할 때는 너무 신이 났었다. 원래는 연극을 하기로 했었는데 잘 안돼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기와 율동을 하기로 하였다. 노래 코드를 외우고 율동 순서를 외우느라 힘들었다. 이번 캠프를 갔다 와서 파닉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캠프를 또 가게 된다면 다른 팀보다 잘해야겠다고 욕심도 들었다.
-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이해연

미래를 여는 영어캠프를 다녀와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캠프에 처음으로 갔는데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이었다. 영어교실에서 공연을 하려고 1달 전부터 연습을 해왔다. 처음에 연습 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서 공연을 하려고 할 때 너무 긴장 되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실수도 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자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노는 생각에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수영을 기대하느라 밤새 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수영장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다. 미끄럼틀도 있고 파도 나오는 데도 있고 야외로 나가서 수영할 수도 있고 정말 재미있었다. 제일 재미있는 게 잠수하면서 서로 장난치는 거였다. 수경을 써서 물속에서 눈을 뜰 수도 있고 수중 가위바위보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다. 하지만 집에 갈 때는 아쉬웠다.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쓸데없이 많았다. 그래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차에서 잠을 잤다. 집에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렸다. 이런 여행은 다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있었다. '이런 여행을 계속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이런 캠프 덕에 나는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서우업

캠프를 간다는 말에 기대가 되었다. 캠프 발표회를 위해 일찍 오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연습도 하였다. 팝송을 부르며 동시에 춤을 추어야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열심히 연습 잘 한다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힘이 났다.
드디어 캠프 가는 날, 너무나 기대가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숲체험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휘닉스파크에서 물놀이도 하고 너무나 재미있었다. 방안에서는 장기자랑 콘테스트도 하여 더욱 더 재미있고 좋은 추억을 남겼다. 친해지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 너무 좋았다.
- 씨앗지역아동센터 이다은



날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워터파크 체험. 물놀이는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선택한 야외활동이다. 강원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놀이가 선사한 특별한 추억은 캠프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2016년 1월 7~8일, 강원도 청태산 숲체원에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영어캠프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그동안 닦아 온 영어실력을 연극, 노래, 뮤지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해 선보이는 자리로 올해 처음 캠프에 참여한 저학년 어린이들에서부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캠프에 온 고학년까지 14개 기관, 113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라서기까지는 모두 한껏 긴장된 표정이다. 발표의 마지막은 어린이들이 다함께 불러보는 합창의 시간. '도레미송'을 부르는 어린이들의 밝은 표정과 큰 목소리가 캠프장을 울린다. 다음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저소득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도구를 활용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미래회가 후원한다.

종이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종이접기 강사 교육 수료식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종이접기 수업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



종이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종이접기 강사교육 수료식이 2015년 12월 30일(수), 종이문화재단에서 있었다.

종이접기 강사교육은 공부방 교사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에게 종이접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종이접기 교육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어린이들은 수학적, 과학적 사고와 함께 집중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종이문화재단에서 교재와 재료비 등을 후원한 이번 교육에 12개 지역아동센터 14명의 교사가 신청해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종이접기강좌를 개설한다는 공지를 보고 설레는 맘으로 신청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종이접기를 가끔 하기도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늘 아쉬웠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강사자격증을 획득하여 당당히 전문 강사로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가르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도전하였습니다.

한 장의 색종이로 다양한 문양과 모양을 만들어 내고 표현함을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종이접기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집중력, 표현력이 점점 발달되고 자신감 또한 급상승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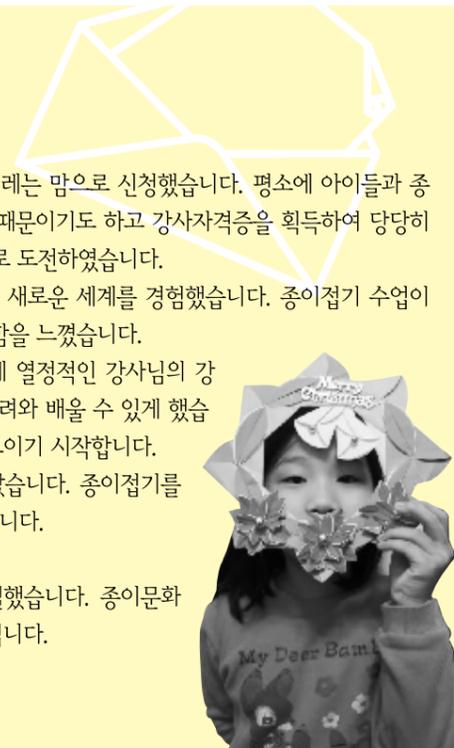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교사로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내기가 어려운데 열정적인 강사님의 강의와 종이사랑의 감동들이, 많은 업무를 뒤로한 채 피곤함을 견디며 달려와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수업을 수료하려고 하니 아쉽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강사님께 배운 크리스마스 리스를 아이들과 함께 접어보았습니다. 종이접기를 배우고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대만족이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에 종이접기 수업시간을 개설했습니다. 종이문화재단에서 배운 기초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개발시켜 볼 예정입니다.

-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 공민숙 교사



2016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워크샵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지난 3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샵이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됐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사교육의 기회가 적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도 영어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미래회(회장 박지영)가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1,791개 기관, 12,139명의 어린이가 참여했고, 현재는 50개 기관 308명의 어린이들이 영어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워크샵은 지난 9년간 진행돼 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보다 충실해야 할 점, 영어교실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개별적인 사례 발굴 등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는데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무리하게 영어공부를 하던 아이는 영어에 대해 심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들어가기 전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친구는 지금 1년째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의 장점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더이상 지원받을 수 없어 자신감을 서서히 잃어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학생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꼭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은 3차례에 걸친 조별 및 전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명상센터 공감의 이덕희 대표가 진행하는 숨 고르기를 통해 지친 몸을 이완하고 힐링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평가회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평가회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6개월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다양하고 재미난 수업방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영어교실이 되기 위한 진행 방향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며 어린이들에게 영어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 2015년 하반기 : 9월 4일 서울시민청 워크숍룸
- 2016년 상반기 : 3월 8일 여성플라자 세미나실

2016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열려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제19차 정기총회가 2016년 2월 24일(화)에 열렸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제39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2015년 사업 및 재정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했다.

이어 사랑의 친구들 이사 및 직원, 정회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보고와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정원 사무총장이 보고했다. 2016년 사랑의 친구들은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교육',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증 취득교육', '사랑나누기 바자한마당', '사랑의 떡국나누기' 등 기존 사업들의 후속평가를 강화해 앞으로 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사랑의 친구들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8년에 대비해 김성애 이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개별아동후원 장학금'

개별아동후원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찾아보며 탐구해 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어린이, 부모의 부재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이 등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들에게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나눔 사업이다. 어린이들은 매달 지원되는 소중한 장학금으로 학교 준비물과 자신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더 넓은 세상과 마주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간다. 현재 13명의 개인 후원자와 2개의 단체에서 32명의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
김경란, 김경희, 김병준, 김수정, 김지연, 김철웅, 김흥기, 노영혜, 성현정, 인재근, 정명화, 최병권, 최병철, 시카고버논힐스교회, 미래회

추억과 감동을 전해주는 문화초청행사

2015년 12월 11일~17일 공연기획사 (주)세상기록에서 'THE 태권포스 - 에이지 오브 태극' 공연에 진관지역아동센터, 화평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2명을 초청했다. 태극기의 탄생설화를 태권도의 품새와 고공격파기술을 통해 표현한 창작공연으로 공연관람의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하고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했다.

뮤지컬을 보니 재미있었어요. 제가 태권도 3품이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뒤로 점프해서 격파 하는 모습이 아주 멋졌어요. 제가 뮤지컬을 보고 태권도에 대해 고 정관님이 깨졌어요. 태권도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뮤지컬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태권도를 계속해서 격파를 잘 할 거예요. 파이팅!!

화평지역아동센터 임민수

센터에서 연극을 보러 갔다. 제목은 태권포스였다. 공연에는 태권도 유단자가 정말 많았다. 공연을 볼 때 악당이 나올 때는 박수를 안치고 태권포스가 나오면 박수를 많이 쳤다. 공연이 끝나고 선생님이 태권도 유단자를 사진으로 찍어주셨다. 태권포스는 정말 멋있었다.

진관지역아동센터 윤정민



어린이 종이접기 급수과정 협약식

2016년 1월 18일(화), 종이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급수자격 과정' 공동 운영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종이문화재단 노영혜 이사장, 사랑의 친구들 이정원 사무총장을 비롯해 3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와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상호협약을 맺었다.

이번 급수 과정은 강사 자격을 취득한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여 3급~1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쁨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흑석지역아동센터에서 종이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교재와 재료를 가지고 2월~8월까지 어린이들의 자격 취득에 도전한다.



사랑의 간식나누기

기내에서 개봉되지 않고 나오는 과자류, 라면, 초콜릿 등을 모아 간식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2001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후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서울 1개 기관, 경기지역 3개 기관, 충청지역 3개 기관, 총 7개 기관 어린이 219명과 간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지원 기관>
광교마을지역아동센터, 그린지역아동센터, 솔샘지역아동센터, 안산중부지역아동센터, 충주지역아동센터, 행복을꿈꾸는지역아동센터, 화성우리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형	김문규	김연환	김지은	노영혜	박정서	배장훈	안창민	이기정	이철우	조남철	최해경
경육호	김미애	김영남	김철웅	노윤화	박정해	배주영	양미선	이순례	이현승	조성민	최해선
김 솔	김병준	김영미	김한정	노지혜	박정훈	성인숙	오경임	이승근	인재근	조주영	하원호
김 향	김복선	김용주	김흥기	박 영	박정희	성현정	오영란	이승희	임지선	주영숙	하운태
김경돈	김상우	김용현	김홍배	박경숙	박종대	손목자	오재환	이영옥	임형국	지영선	한대준
김경란	김성애	김인섭	김홍익	박동찬	박종렬	송도순	오차환	이은경	임형균	차수연	한미향
김경영	김성재	김장곤	김홍주	박상지	박진희	송석호	유달리	이은정	정명화	차순걸	허 장
김경희	김소민	김정국	김홍진	박상호	박필규	송요선	윤상현	이을윤	정우상	최동균	홍진아
김교은	김수정	김정달	남기현	박용상	박희경	송현석	윤장순	이정원	정재인	최병권	홍진표
김남훈	김순자	김종량	남은미	박우용	방병찬	신선련	윤현봉	이종옥	정정례	최병철	황경민
김도균	김시은	김지연	남창우	박윤희	배민영	안종길	이계호	이진용	조기제	최지은	황정희

(명)삼하사, (주)연합뉴스, CAFE LIVI, 글로벌어린이재단, 미래회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버논힐스, 애니복스, 유라, 채은즈카페, 한양대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도서, 비디오테이프)	명인제약(주)(의약품)	(주)쌍방울(아동내의, 체육복)
김경희(도서)	보령제약(주)(의약품)	(주)유한양행(의약품)
김영미(화장품)	삼진제약(주)(의약품)	(주)종근당(의약품)
김주희(사무집기)	아시아나(기내식)	(주)휴온스(의약품)
성낙진(도서)	의왕 부곡장로교회(양말)	하나금융나눔재단(문화공연 초청)
조남만(백화점상품권)	종이문화재단(종이접기 강사교육)	한미약품(주)(의약품)
CJ나눔재단(스팸)	(주)녹십자(의약품)	JW중외신약주식회사(의약품)
대웅제약(의약품)	(주)세상기록(공연 초청)	JW중외제약주식회사(의약품)
대한한공(기내식)	(주)스타키코리아(보청기)	
동아ST(의약품)	(주)실버텍스(양말)	

연락처 등이 누락돼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팀 : 734-4945 ~ 7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9길 10 (옥인동 47-483)